

주간 통일정세

2017-2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7.3	北, 기념일 맞은 전략군 띄우기...“믿음직한 핵무장력”(연합뉴스) 北 ICBM 성공 주장 뒤에 있는 ‘미사일 4인방’ 주목(연합뉴스)			
	7.5	北, ‘ICBM 발사 성공’ 분위기 띄우기 나서(연합뉴스)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단분리 기술 최종 확증”(연합뉴스)			
		7.6	北 매체, ‘ICBM 시험발사 성공’ 대대적 선전(연합뉴스) 北, 평양서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자축 행사(연합뉴스)		
	군사	7.4	北, 평북 방현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미군 “北 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거리...37분간 비행”(연합뉴스) 소식통 “北미사일, 최고고도 2천500km이상 추정...ICBM 가능성”(연합뉴스) 日 방위성 “北미사일 고도 2천500km 크게 넘어...900km 비행”(연합뉴스) 美 전문가 “北미사일, 6700km 날아 알래스카 타격 가능”(연합뉴스)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연합뉴스)		
			7.5	러 국방부 “北 발사 탄도미사일 ICBM아닌 중거리 미사일”(연합뉴스) 軍 “北발사 미사일 ICBM급 신형...개발성공 단정하긴 제한”(연합뉴스) 美 전문가들 “北 이동식ICBM 문턱 넘어...샌프란시스코도 사정권”(연합뉴스) 中 양자과학 전문가 “北발사 미사일, ICBM으로 볼 수 없다”(연합뉴스) 北, ‘화성-14형’ 발사 영상 공개...‘안정적 상승’ 엔진 성능 확인(연합뉴스) 한미, 北도발 대응 탄도미사일 훈련...300km 현무-2A 발사(연합뉴스) 軍, 가상 평양타격 장면 등 ‘참수작전’ 영상 대거 공개(연합뉴스)	
				7.6	美 국방부 “北 ICBM은 신형...재진입체 존재도 확인(연합뉴스) IAEA 전 차장 “北, ICBM 탑재 소형화 핵탄두 보유 가능”(연합뉴스) 北 ICBM 안정·정확성엔 1~2년 더 필요...이미 억지력은 충분(연합뉴스) 軍, 北도발 대응 해·공군 실사격훈련...정밀타격 능력 과시(연합뉴스) 해·공군, 동해서 실사격훈련...北도발 대응 이틀째 무력시위(연합뉴스)
7.7					美 전문가 “北, 화성-14형에 핵탄두 즉시 장착도 가능”(연합뉴스) 美 38노스 “北, 국내 어디서든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 입증”(연합뉴스)
					7.1
경제					7.4

사회 문화	7.7	北, 유엔제재 강화로 두달 연속 석탄수출 없어(연합뉴스)
	7.1	北 “가뭄과 전투, 존엄 사수전”...곡창지대 강수량 평년 3분의1(연합뉴스)
	7.3	조선신보 “北, 올해 기계제조 국제심판 4명 배출”(연합뉴스) 평양에 일본형 저가연쇄점 ‘미니소’ 진출...“특권층 고객 열광”(연합뉴스)
	7.4	“유엔, 北 5만ha 농경지 가뭄 피해 추정”(연합뉴스)
외교 국방	7.1	트럼프 “북한에 대한 인내 끝났다...한미FTA 아주 많이 달라질 것”(연합뉴스)
	7.4	“북한, 트럼프 정권에 ‘한국 빼고 평화협상’ 요구”(연합뉴스)
		中 매체들 ‘北 ICBM 발사 주장’ 주목...“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발”(연합뉴스)
		日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연합뉴스)
		日, ‘北 ICBM 발사성공’ 발표에 NSC 재소집...“한미와 연대 대응”(연합뉴스)
		러시아 언론, 北미사일 발사 긴급 뉴스로 보도(연합뉴스)
		北,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외교행낭 사건 협력 기대”(연합뉴스)
	7.5	美 정부 ‘北미사일 ICBM’ 결론 내린 듯...“2단계 ICBM 가능성”(연합뉴스)
		美 국무 “강력한 조치로 北 ICBM 책임물겠다...北핵무장 절대 불용”(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ICBM 성공으로 외교협상 모색 현안 부각”(연합뉴스)
		中 “北ICBM 발사 성공여부 정보수집 중”...공식인정 ‘유보’(연합뉴스)
		英佛獨,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대화 복귀 촉구도(연합뉴스)
		구테흐스 유엔총장 “北 또다시 유엔 결의 뻔뻔하게 위반”(연합뉴스)
	7.6	백악관 “대북 조치 광고하지 않지만 옵션 찾는 중”(연합뉴스)
		美 유엔대사 “우리의 군사력 막강...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연합뉴스)
		호주 총리·외교·국방 공동성명 통해 北 ICBM 규탄(연합뉴스)
대만도 북한 ICBM 발사 규탄...외교·총통부 비난 성명(연합뉴스)		
트럼프 “北행동에 매우 엄중한 조치 검토, 금지선은 설정 안 해”(연합뉴스)		
	英 외무부, 북한대사 불러 탄도미사일 발사 항의(연합뉴스)	
7.7	日 방위백서 “북핵·미사일 개발, 새로운 단계 위협”(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7.5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발사 현지지도 공개활동	리병철, 김락겸,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전일호, 유진,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7. 5.

■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단분리 기술 최종 검증”(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4’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미사일 조립 현장을 계속해서 찾아 과학자·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 했을 것”이라며 “독립절(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언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7. 5.

■ 北 ICBM 성공 주장 뒤에 있는 ‘미사일 4인방’ 주목(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화성-14’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리병철, 김락겸,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전일호, 유진, 조용원 등이 동행했다”고 전함.
- 이들 중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과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해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군수 분야에 몸담은 인물임.
- 특히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정승일 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5월 14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2월 12일·5월 21일), 지대공 요격미사일(5월 27일), 정밀유도 탄도미사일(5월 29일) 등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7. 6.

■ 北, 평양서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자축 행사(연합뉴스)

- 북한은 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해 평양시군민연환대회를 벌이며 축제 분위기를 띄움.
-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은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북한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라며 “대출력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비롯한 수십, 수백 차례에 걸치는 간고한 기초시험 단계와 부분시험 단계를 거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단번 성공을 드디어 온 세상에 시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이날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이 자리했으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중앙TV도 김 위원장을 호명하지 않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7. 3.

■ 北, 기념일 맞은 전략군 띄우기…“믿음직한 핵무장력”(연합뉴스)

- 북한은 3일 핵·미사일 운용 부대인 전략군 창설기념일 ‘전략군절’을 맞아 전략군을 ‘조국의 자랑이고 힘’이라고 내세움.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두산 혁명강군의 최정에 무력,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전략군은 내 조국의 자랑이고 힘”이라며 “우리의 믿음직한 핵 무장력”이라고 치켜세움.
- 신문은 전략군의 미사일에 대해 “지구 상 어디든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으며, 신속한 기동·전개로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백번 쏘면 백번 다 성공한다”고 주장함.

2017. 7. 5.

■ 北, ‘ICBM 발사 성공’ 분위기 띄우기 나서(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내부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1~5면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채웠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참관한 소식과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 총 56장도 게재함.
- 신문은 또 ‘위대한 우리 조국 만만세’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오늘 우리 혁명의 2대 전선은 군수공업과 경공업”이라며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군수공업부문의 승전포성에 화답해 경공업 전선에서 인민생활 향상의 승전포성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2017. 7. 6.

■ 北매체, ‘ICBM 시험발사 성공’ 대대적 선전(연합뉴스)

-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내부적인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체제선전과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번 발사를 본격 활용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우리 당 병진노선의 대승리,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북한) 노동당의 병진노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 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라고 주장함.
- 신문은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한 주체적인 국방공업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선전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7. 4.

■ 北, 평북 방현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밝힘.

■ 미군 “北 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거리…37분간 비행”(연합뉴스)

- 미국은 4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힘.
-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 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93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힘.

■ 소식통 “北미사일, 최고고도 2천500km 이상 추정…ICBM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2천500km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지난 5월 15일 발사한 화성-12형(최고고도 2천111.5km)보다 높이 올라갔다”면서 “비행 고도가 2천300km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고고도는 이보다 더 높다”고 밝힘.
- 정부 일각에서는 최고 고도가 2천500km 이상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소식통은 “최고 고도는 2천500km 이상일 가능성도 있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함.

■ 日 방위성 “北미사일 고도 2천500km 크게 넘어…900km 비행”(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고도가 2천500km를 크게 넘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방위성은 이어 이번 미사일은 북한 서해안의 구성 부근에서 동쪽 방향으로 900km 비행했다고 분석함.
-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 미사일이 약 40분간 날아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경제 수역(EEZ) 내에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美 전문가 “北미사일, 6700km 날아 알래스카 타격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대 6천700km를 날아가 미국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 주(州)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옴.
-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CS) 소속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비행거리가 930km 이상이고, 37분 간 비행했다’는 발표가 맞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힘.
- 라이트는 “비행거리로 추정할 때 37분의 비행시간은 미사일이 최대 2천80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어 “보도가 정확하다면

같은 미사일이 표준 궤도로 날아가면 대략 최대 6천700km의 거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래쪽 48개 주와 하와이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리지만 알래스카 전역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연합뉴스)

- 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국방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탄도로켓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으며,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천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설명함.
- 보도는 ICBM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날 로켓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으며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했다”고 국방과학원 보도는 소개함.

■ 러 국방부 “北 발사 탄도미사일 ICBM 아닌 중거리 미사일”(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러시아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로 규정함.
-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성격과 관련 “탄도체 비행 궤도 자료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술기술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북한 미사일이 사거리 5천500km 이상의 ICBM이 아니라 1천~5천500km 사이의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는 분석임.
- 러시아 국방부는 “4일 3시 46분(모스크바 시간·한국시간 9시46분) 북한 훈련장에서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를 러시아 미사일공격경보기시스템이 포착해 추적했다”면서 “미사일이 535km 고도까지 올라갔으며 약 510km를 비행한 뒤 일본해(동해) 중심부에 떨어졌다”고 밝힘.

2017. 7. 5.

■ **軍 “北발사 미사일 ICBM급 신형…개발성공 단정하긴 제한”(연합뉴스)**

-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함.
-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한다”고 보고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화성-14형’의 비행 속도와 관련, “마하 20보다 훨씬 떨어진다”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초기 정도의 ICBM으로 본다”고 설명함.

■ **美 전문가들 “北 이동식ICBM 문턱 넘어…샌프란시스코도 사정권”(연합뉴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 개발의 문턱을 넘어섰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에 주목함.
- 화성-14형의 사정권이 예상보다 넓어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는데, 미사일 전문가인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미사일방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초기 분석 결과만 놓고 볼 때 화성-14형의 사거리는 6천200마일(9천977km)로, 샌프란시스코가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함.
-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는 “북한이 ICBM 능력 확보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며 “아직은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3~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中 양자과학 전문가 “北발사 미사일, ICBM으로 볼 수 없다”(연합뉴스)**

-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북한이 4일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중국의 양자과학 국방 수석과학자인 양청권(楊承軍)은 5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거리가 향상됐지만 ICBM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발표된 데이터는 모순이 있어 ICBM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함.
- 그는 “국제기준을 보면 사거리 5천~8천km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이며 북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 특히 로켓 엔진의 연결 기술과 정확한 기폭 기술을 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화성-14형’ 발사 영상 공개…‘안정적 상승’ 엔진 성능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14형’ 미사일은 발사 단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이뤄진 화성-14형 발사 과정의 일부가 담긴 약 4분 40초 길이의 영상을 5일 공개했는데, 영상은 화성-14형을 실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가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해 지상 발사대에 거치돼 공중으로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줌.
-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화성-14형은 사방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수직으로 솟아올랐으며, 상승 과정에서 약간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음.

2017. 7. 6.

■ **美 국방부 “北 ICBM은 신형”…재진입체 존재도 확인(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함.
- 미 국방부는 또 북한 ICBM의 말단에 재진입체가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우리 국방부가 ICBM 발사 다음 날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임.

■ **IAEA 전 차장 “北, ICBM 탑재 소형화 핵탄두 보유 가능”(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직 관리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핵탄두 보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올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RFA에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북한의 기술과 인력을 고려하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상당히 정교하고 소형화한 500kg 이하의 핵탄두 보유가 가능하다”고 말함.

-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이 첫 핵실험 이전인 1980년대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우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북한에서 ICBM 실전배치가 적어도 1~2년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기술 개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클 것이라고 언급함.

■ 北 ICBM 안정·정확성엔 1~2년 더 필요...이미 억지력은 충분(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에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으려면 1~2년 더 걸리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억지 용도로는 “매우 충분할 수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 연구원이 말함.
-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인 그는 5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당초 북한이 2020년 초쯤 ICBM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북한이 가진 시간표는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전략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말함.

2017. 7. 7.

■ 美 전문가 “北, 화성-14형에 핵탄두 즉시 장착도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시험 성공을 선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에 당장 핵탄두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됨.
- 미 항공우주 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개발이 쉽고 실패 확률이 적은 반원봉 재진입체를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의 반원봉 재진입체에 핵탄두를 거의 즉시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실링 연구원은 “10년간 6차례의 시험 이후에 북한은 거의 확실히 이 탄도미사일에 부착할 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기에 앞서 이번 테스트 결과를 관독하느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이 기다림은 몇 주, 또는 몇 달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그러면서 “이는 머지않은 미래이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다. 확실히 1년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함.

■ **美 38노스 “北, 국내 어디서든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 입증”(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던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가 6일(현지시간) 밝혔.
-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게재한 분석 자료에서 “발사장소의 지리적 위치는 (비행장) 남동쪽 8km 지점의 계곡 안이고, 이 계곡에 북한의 주요 비행기 제조·연구 시설인 방현항공기공장이 있다”고 밝혔.
- 이어 “이 지역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은 처음으로, 이하리 군용차량 시험장에서 북극성-2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이는 북한이 국내 어디에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향상된 능력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나. 한국 및 미국

2017. 7. 5.

■ **한미, 北도발 대응 탄도미사일 훈련…300km 현무-2A 발사(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을 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냄.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
- 이어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설명함.

■ **軍, 가상 평양타격 장면 등 ‘침수작전’ 영상 대거 공개(연합뉴스)**

- 군 당국이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함.
- 특히 독일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가상의 평양을 타격하는 장면도 처음 공개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
- 군은 이날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 300km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 발사 영상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영상을 공개함.

2017. 7. 6.

■ **軍, 北도발 대응 해·공군 실사격훈련...정밀타격 능력 과시(연합뉴스)**

- 우리 군이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 해·공군 합동 실사격훈련으로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함.
- 해군은 6일 “동해 중부 해상에서 오늘 적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해상·공중 합동작전 능력 향상과 무기체계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합동 전투단 실사격훈련을 한다”고 밝힘.
- 해군 1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의 3천200t급 구축함 양만춘함을 비롯한 함정 15척,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공군의 FA-50, F-4E, KF-16 등 전투기가 투입됐으며, 훈련은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가상의 적 수상함을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로 격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7. 1.

■ **北, 5월까지 中서 곡물 수입량 작년보다 4배 늘어(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일 전함.
-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만6천291t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천 683t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4배 늘었다”고 밝힘.
- 또 지난 5월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5천673t의 곡물을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 1천424t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함.

2017. 7. 4.

■ 中 북한전문여행사 대표 구속…“대북제재 국면 연관성”(연합뉴스)

- 4일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단둥시 진싱(振興)구 소재 단둥 중국국제여행사(CITS)의 최안순지(全順姬) 동사장 겸 총경리가 최근 공안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음.
- 단둥 중국국제여행사는 주변 지역에서 북한전문여행사로 잘 알려졌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신의주 무비자 반나절관광상품’이 인기를 끄는 등 대북 관광사업을 활발히 벌여왔음.
- 소식통은 특히 “최근 단둥의 모 여행사 관계자가 공무원 비리 관련 등으로 공안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최안 동사장이 소문의 주인공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북한 핵 개발 연계 혐의로 라오닝홍상(鴻祥)그룹을 조사한 데 이어 북한과 밀접한 여행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함.

2017. 7. 7.

■ 北, 유엔제재 강화로 두달 연속 석탄수출 없어(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의 석탄수출이 두 달 연속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밝힌 유엔 회원국은 한 나라도 없었으므로,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북한으로부터 유엔 회원국이 수입한 석탄 물량도 당연히 ‘제로’임.
- 중국으로 추정되는 1개 국가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북한산 석탄 144만과 123만을 수입했다고 밝힌 이후 3월에는 수입량이 6천300t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처음으로 수입량이 ‘0’을 기록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7. 1.

■ 北 “가뭄과 전투, 존엄 사수전”…곡창지대 강수량 평년 3분의1(연합뉴스)

- 북한이 가뭄과의 싸움을 ‘조국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고 부각하며 전체 군대와

주민을 가뭄 극복에 총동원함.

- 노동당 부위원장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최룡해와 박봉주 내각 총리까지 연이어 가뭄 피해 현장을 시찰하는 등 최근 북한 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가뭄 극복인 것으로 보임.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온 나라가 가뭄과의 투쟁에 총동원·총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당, 전국, 전민을 가뭄과의 투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분위기를 띄움.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7. 3.

■ 조선신보 “北, 올해 기계제조 국제심판 4명 배출”(연합뉴스)

- 북한의 기계제조 감독 4명이 올해 국제심판 자격을 따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에서 올해 들어 4명의 남녀 감독이 기계제조 국제심판원 자격을 받았다”고 밝힘.
- 5월 1일부터 4일까지 홍콩에서 남자 기계제조 국제심판 강습이 열렸고 강습 기간 치러진 심판자격 급수시험에 김창규 평양체육단 감독과 리윤도 기관차체육단 감독이 응시해 국제심판 자격을 받음.

■ 평양에 일본형 저가연쇄점 ‘미니소’ 진출…“특권층 고객 열광”(연합뉴스)

- 지난해 한국에도 진출한 저가형 생활용품 연쇄점인 ‘미니소’가 지난 4월 북한 평양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평양으로부터 들리는 얘기들에 따르면 평양 특권층이 이 매장에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전함.

- 이 매체는 지난달 22일 자에서 최근 이 매장을 방문한 한 평양 거주 외국인의 말을 빌려 매장에 장난감과 화장품, 실내 장식 용품들이 주로 진열돼 있고 가격은 2달러(2천300원)~10달러 수준이며, 가격표는 북한 화폐 ‘원’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론 달러화나 유로화, 혹은 중국의 위안화만 받는다고 설명함.
- 매장은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들까지 초청해 대대적인 준공식을 열고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거리인 려명거리에 있는 “연꽃 모양”의 건물에 들어섰다.

2017. 7. 4.

■ **“유엔, 北 5만ha 농경지 가뭄 피해 추정”(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곡창지대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등에서 5만ha의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보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자료를 인용해 4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3일 “지난 1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30~80% 감소해 북한의 주요 농경지에 가뭄이 지속했다”면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등 약 5만ha의 농경지가 가뭄으로 인해 작년 대비 작물 수확량이 3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유엔과 북한 당국,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27일 가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황해남도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힘.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7. 1.

■ 트럼프 “북한에 대한 인내 끝났다…한미FTA 아주 많이 달라질 것”(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행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면서 “솔직히 그 인내는 끝났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련의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들을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은 역내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또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지금 무모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주민들과 이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2017. 7. 4.

■ “북한, 트럼프 정권에 ‘한국 빼고 평화협상’ 요구”(연합뉴스)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에 평화협상을 하자면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런 내용은 지난 6월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 3명과 미국 전문가 등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이 도쿄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함.
- 신문에 따르면 당시 북한 당국자는 “우리를 우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면서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전함.

2017. 7. 5.

■ **美 정부 ‘北미사일 ICBM’ 결론 내린 듯..“2단계 ICBM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CNN 방송과 폭스뉴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이라고 미 관리들이 확인해줬다고 일제히 보도함.
- 한 고위 관리는 CNN 방송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2단계 ICBM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리는 “미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함.

■ **美 국무 “강력한 조치로 北 ICBM 책임물겠다..北핵무장 절대 불용”(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선언에 대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 틸러슨 장관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면서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 “北 ICBM 성공으로 외교협상 모색 현안 부각”(연합뉴스)**

-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협상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화성-14형, 평화와 통일의 통장훈(장기에서 외통장군)’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의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밝힘.
- 이어 “지금 변해야 할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핵전쟁 위기는 북핵 포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함.

2017. 7. 6.

■ **백악관 “대북 조치 광고하지 않지만 옵션 찾는 중”(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맞서는 대응 조치를 예고함.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폴란드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떤 다음 조치들도 절대 광고하지 않겠다는 매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우리는 옵션들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계속 교역하는 것을 허용 받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함.

■ **美 유엔대사 “우리의 군사력 막강…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연합뉴스)**

- 미국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히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해야 한다면(if we must)’ 대북 군사수단도 불사하겠다고 말함.
-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고 전체회의 후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라며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트럼프 “北행동에 매우 엄중한 조치 검토, 금지선은 설정 안 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호 발사와 관련, “북한이 몹시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상당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러나 ‘엄중한 조치’에 대해 “우리가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레드라인(금지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덧붙임.

나. 북·중 관계

2017. 7. 4.

■ 中 매체들 ‘北 ICBM 발사 주장’ 주목..“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발”(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함.
- 일부 중국 매체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선언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회담을 한 뒤에 일어났다”고 전했으며, 관영 신화통신도 ICBM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긴급 기사로 타전하면서 북한의 특별중대보도 내용을 자세히 전함.

2017. 7. 5.

■ 中 “北ICBM 발사 성공여부 정보수집 중”...공식인정 ‘유보’(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만 밝힘.
- 미국은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 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경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의하고 있고, 현재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날과 같은 입장을 피력함.

다. 북·일 관계

2017. 7. 4.

■ 日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39분께 북한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약 40분간 날아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며 “이런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함.

■ 日, ‘北 ICBM 발사성공’ 발표에 NSC 재소집…“한미와 연대 대응”(연합뉴스)

- 북한이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재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일단 판단을 유보했으며,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도 북한의 발표를 긴급 속보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된 뒤 NSC를 소집한 뒤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그는 NSC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강한 결속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를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2017. 7. 7.

■ 日 방위백서 “북핵·미사일 개발, 새로운 단계 위협”(연합뉴스)

- 일본의 2017년도판 방위백서 원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지만, 올해 원안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능력이 향상된

점을 들어 경계감을 한 단계 높여 명기했다. 방위백서는 8월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 백서 원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난 2월 12일과 5월 21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이라고 소개했으며,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일반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트드(lofted, 고각)’ 궤적이라며 장(長)사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적음.

라. 북·러 관계

2017. 7. 4.

■ 러시아 언론, 北미사일 발사 긴급 뉴스로 보도(연합뉴스)

- 러시아 언론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긴급 뉴스로 보도함.
-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발표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미사일이 약 40분을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독일)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소개했으며, 다른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발사된 미사일이 930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고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7. 4.

■ 北,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외교행낭 사건 협력 기대”(연합뉴스)

-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최근 미국 당국이 북한의 외교행낭을 압수한 사건에 개입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 주재 상임대표 자성남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유엔주재 조선 대표부의 외교신서물(diplomatic package)이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3일 편지를 보냈다”고 밝힘.

- 자성남은 편지에서 “지난 6월 16일 미 국내안전성(국토안보부) 소속이라는 인물들과 경찰을 포함한 20여 명이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하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지참한 외교신서물을 강탈했다”고 주장함.

2017. 7. 5.

■ 英佛獨,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대화 복귀 촉구도(연합뉴스)

- 유럽 주요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일제히 강도 높게 규탄했으며, 특히 독일은 즉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명시적으로 촉구함.
- 프랑스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지역과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지체 없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를 것과,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국제 사회가 북한 정권이 대가를 치르도록 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주민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불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첫 ICBM이다”라며 강력히 규탄한 뒤 “이는 북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새로운 질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함.

■ 구테흐스 유엔총장 “北 또다시 유엔 결의 뻔뻔하게 위반”(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지역의) 상황을 위협스러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규탄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또다시 뻔뻔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함.
-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채택한 7건의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017. 7. 6.

■ **호주 총리·외교·국방 공동성명 통해 北 ICBM 규탄(연합뉴스)**

- 총리를 포함한 호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호주도 이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놓였다고 우려를 표시함.
-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와 줄리 비숍 외교장관,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사거리 안에 있는 모든 국가를 직접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언론이 6일 보도함.
-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도발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 **대만도 북한 ICBM 발사 규탄...외교·총통부 비난 성명(연합뉴스)**

- 6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차 위반한 것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난하며, “북한의 도발을 엄정히 규탄하며 고도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어 “대만은 동아시아 역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한반도 정세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확실히 준수하는 한편 역내 안전을 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린허밍(林鶴明) 총통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북한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렸다”면서 “대만은 이러한 행위를 비난한다”고 말함.

■ **英 외무부, 북한대사 불러 탄도미사일 발사 항의(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힘.
-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한 것으로 지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영국주재 북한대사를 지난 5일 외무부로 불러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힘.
- 필드 대변인은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대신 국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1		트럼프 “무역적자 더는 허용 못해”...한미FTA 재협상 공식화(연합뉴스)
	7.5		美 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진 기존협정 준수”(연합뉴스)
		한미일, 대북 ‘상응조치’ 협의...안보리 신규 제재 추진될듯(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틸러슨 “유엔 차원 강력한 조치”(연합뉴스)	
		한미 軍, 北 도발 대응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연합뉴스)	
7.6		트럼프 “우리 돕지 않는 나라들과 왜 무역협정 계속해야 하나”(연합뉴스)	
7.7		한미 국방장관 통화...“北도발 상응 대가 다양한 방안 논의”(연합뉴스)	
		선명해진 한미일-북중러 구도...베를린 구상 추진 ‘혐로’ 예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3		시진핑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해야...역내 전략균형 훼손”(연합뉴스)
			中외교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사드 반대 불변” 강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7.6		시진핑 “한국, 중국의 정당한 우려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연합뉴스)
한일 관계	7.1		日언론 “아베, 한일정상회담서 대사관앞 소녀상 조기철거 요구”(연합뉴스)
	7.5	한미일 “北 미사일 도발 규탄, 안보리 조치 포함 강력 대응”(연합뉴스)	
	7.6	美日 국방·외교장관 北ICBM 대응 전화통화...“연대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한러 관계	7.3		러 외교장관 “문대통령 9월 러시아 방문 기대”(연합뉴스)
	7.6		러 “한반도 문제 무력적 해결 용납 안돼...제재 만병통치약 아냐”(연합뉴스)
	7.7	“안보리 ‘北ICBM’ 규탄 성명, 러시아 반대로 무산”(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1	미국무부 中, 대북압박 일관성 없어...압박 더해야(연합뉴스)	
	7.3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 “한반도 비핵화 약속 재확인”(연합뉴스)	
		中 “美와 밀월끝났다는 말 동의못해”...美압박에 ‘강약 조절’ (연합뉴스)	
		다시 남중국해 ‘긴장’...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도발말라”(연합뉴스)	
	7.4	“트럼프, 시진핑에게 ‘대북 독자 행동 준비’ 경고”(연합뉴스)	
	7.5	트럼프 中-北간 무역 급증...中과 일하는 게 참...對中 압박(연합뉴스)	
7.6			中, 美의 “北 거래국가와 교역 중단” 시사에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美 레드라인 넘은 北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1	美남부에 ‘평화의 소녀상’ 세웠다...“오늘 비는 희생자의 눈물”(연합뉴스)	
	7.3	아베-트럼프 통화...“한미정상회담 결과 바탕 대북압력강화 확인”(연합뉴스)	
	7.6	美日 국방·외교장관 北ICBM 대응 전화통화...“연대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6		러 외무부 “6자회담 재개 거부하는 美

		이해 못 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1		日도 중단등은행·다렌국제해운 제재키로...거래금지·자산동결(연합 뉴스)
	5.4		日, 對中 의원외교 활발...“대북제재 동참 유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4	시진핑·푸틴 “韓사드배치 반대...한반도문제 대화해결 합의“(연합뉴스)	
		러-中, 정상회담 뒤 한반도 위기 해결책 담은 공동성명 발표(연합뉴스)	
	7.5	푸틴-시진핑, 울들어 세번째 정상회담...“국제·지역 현안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7.7		러, 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일 크게 당혹(연합뉴스)

가. 한·미 관계

2017. 7. 1.

■ **트럼프 “무역적자 더는 허용 못해”…한미FTA 재협상 공식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국 간 통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산 자동차 수출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한국산 철강 덩핑 문제를 제기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두 정상 간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무역협정(FTA) 재협상 착수를 공식화함.

2017. 7. 5.

■ **한미일, 대북 ‘상응조치’ 협의…안보리 신규 제재 추진될듯(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5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통화 때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비롯, 대북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힘.
-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안보리의 조치를 미국 등 이사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틸러슨 “유엔 차원 강력한 조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힘.
- 틸러슨 장관은 이날 밤 약 15분간의 통화에서 한미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외교부가 전함.

- 텔러슨 장관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비롯,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가운데, 특히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한미 軍, 北 도발 대응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냄.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어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설명함.

2017. 7. 6.

■ 트럼프 “우리 돕지 않는 나라들과 왜 무역협정 계속해야 하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또다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개로 맹비난함.
-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들을 일부 체결했으며 우리가 왜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과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반문함.
-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FTA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한미 국방장관 통화...“도발 상응 대가 다양한 방안 논의”(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6일 저녁 유선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북한의 ICBM급 수준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7. 7.

■ **선명해진 한미일-북중러 구도...베를린 구상 추진 ‘헬로’ 예고(연합뉴스)**

-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동북아 신냉전’으로 불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양상임.
- 함부르크에서 7~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6일 만난 한미일 정상은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설명함.
- 특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미중관계를 흔들 수 있는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기업에 대한 일괄 제재)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함.

나. 한·중 관계

2017. 7. 3.

■ **시진핑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해야...역내 전략균형 훼손”(연합뉴스)**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는 역내 전략균형을 훼손하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역내 전략균형을 훼손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중국은 이미 단호한 항의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 **중외교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사드 반대 불변강조”(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경쑤(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북핵 및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연합뉴스 기자가 요구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함.
- 경 대변인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며, 우리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함.

2017. 7. 6.

■ **시진핑 “한국, 중국의 정당한 우려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문 대통령이 일대일로 포럼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고 특사가 중국에 와서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나는 찬성을 표했다”고 말함.
-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면서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7. 7. 1.

■ **日언론 “아베, 한일정상회담서 대사관앞 소녀상 조기철거 요구”(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안부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7일 독일에서 문 대통령과 가질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달할 방침을 굳혔다며 이처럼 전함.

- 이어 아베 총리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합의가 높히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을 전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2017. 7. 5.

■ 한미일 “北 미사일 도발 규탄, 안보리 조치 포함 강력 대응”(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5일 긴급 전화협의를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추정되는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 김 본부장은 전날 일본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전화로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했다고 당국자는 소개함.

2017. 7. 6.

■ 美日 국방·외교장관 北ICBM 대응 전화통화…“연대 확인”(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전날 밤 전화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함.
-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책무를 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지력 제공을 약속했으며 “미국의 최대한의 능력을 사용해(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겠다”고 강조함.
- 두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지역의 안전보장과 안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라. 한·러 관계

2017. 7. 3.

■ 러 외교장관 “문대통령 9월 러시아 방문 기대”(연합뉴스)

- 라브로프 장관은 3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10분간 진행한 통화에서 7~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러

-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9.6~7, 블라디보스토크)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또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새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더불어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함.

2017. 7. 6.

■ 러 “한반도 문제 무력적 해결 용납 안돼…제재 만병통치약 아냐”(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예상대로 추가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하고 나섬.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반도 문제의 무력적 해결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임.
- 그는 “자국 안보 위협에 대한 북한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위험한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즉각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7. 7. 7.

■ “안보리 ‘北ICBM’ 규탄 성명, 러시아 반대로 무산”(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對北)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6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성명 초안을 제안함.
- 그러나 러시아는 성명 초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반대한 게 아니라고 부인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7. 1.

■ 미국무부 “中, 대북압박 일관성 없어…압박 더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중국 단둥은행 제재가 미국의 독자 대북해법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텍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행보를 일관성 없다고 규정지었다”며 이같이 밝힘.
- 노어트 대변인은 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고, 중국의 행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더 압박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함.

2017. 7. 3.

■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 “한반도 비핵화 약속 재확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함.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더욱 균형 잡힌 교역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함.

■ 中 “美와 밀월끝났다는 말 동의못해”…美압박에 ‘강약 조절’(연합뉴스)

-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관련해선 이날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으로 “도발말라”고 강력히 경고한 반면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선 경창(耿爽) 대변인이 미국을 향해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음.
- 경 대변인은 미·중 밀월관계가 끝났다는 지적에 “중국과 미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쌍방관계에서 항상 각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쌍방이 공통인식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미·중 양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초위에서 공통인식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이견을 관리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다시 남중국해 ‘긴장’…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도발말라”(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2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 정부가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탐’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있는 트리톤 섬 12해리(약 22km) 이내의 바다를 항해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
- 루 대변인은 “미국의 구축함이 중국의 시사군도 영해에 들어왔으며 중국은 즉각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경고하고 떠나게 했다”면서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 정부는 1996년 시사군도의 영해 기선을 선포했다”고 밝힘.

2017. 7. 4.

■ **“트럼프, 시진핑에게 ‘대북 독자 행동 준비’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함.
-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정중했지만 직설적이었으며,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이뤄짐.

2017. 7. 5.

■ **트럼프 “中-北간 무역 급증…中과 일하는 게 참!”…對中 압박(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섬.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면서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윈 참!(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고 비판함.
-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취하는 대북제재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2017. 7. 6.

■ **中, 美의 “北 거래국가와 교역 중단” 시사에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전체회의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국가에 대해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포함.
- 경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엄격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특정 국가가 국내법을 통해 다른 국가에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경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행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되며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함.

■ **美, 레드라인 넘은 북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끄집어냄.
- 북한을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을 향해선 미·중 교역 중단을 경고함.
- 북한이 첫 ICBM 시험 도발로 미국의 ‘심리적 레드라인(저지선)’을 넘어서자 역대 최고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

나. 미·일 관계

2017. 7. 1.

■ **美남부에 ‘평화의 소녀상’ 세웠다…“오늘 비는 희생자의 눈물”(연합뉴스)**

- 일본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미국 남부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짐.
-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일명 블랙번2)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함.
- 특히 이번 소녀상 제막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이 나오는 등 일본의 극렬한 반대 속에 이뤄져 더욱 관심을 끌음.

2017. 7. 3.

■ **아베-트럼프 통화·“한미정상회담 결과 바탕 대북입력강화 확인”(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핵실험·미사일 발사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압력 강화를 위해 결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함.
- 미일 정상의 이번 통화는 이달 7~8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비한 사전 정책조정 의도도 있다고 통신은 분석함.

2017. 7. 6.

■ **美日 국방·외교장관 北ICBM 대응 전화통화·“연대 확인”(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의 국방·외교장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연대를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전날 밤 전화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함.
-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책무를 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지력 제공을 약속했으며 “미국의 최대한의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겠다”고 강조함.

■ **美틸러슨-기시다 전화통화·“대북 제재 강화” 한목소리(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수준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기시다 외무상과 틸러슨 장관은 통화에서 “보다 엄격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미일이 연대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봄.
-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기시다 외무상은 통화 내용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전하며, 일본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7. 7. 6.

■ 러 외무부 “6자회담 재개 거부하는 美 이해 못 해”(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6일(현지시간) 지적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이 6자회담 재개를 막고 있는가’란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은 정보와 (정세) 평가를 교환하고 공동성명을 내고 협의를 하는 등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에 앉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함.

라. 중·일 관계

2017. 7. 1.

■ 日도 중단등은행·다롄국제해운 제재키로…거래금지·자산동결(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 단둥(丹東)은행·다롄(大連)국제해운에 대해 미국과 ‘동조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함.
-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단둥은행과 일본의 금융기관 간 거래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다롄 국제해운의 일본 내 자산 동결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짐.

마. 중·러 관계

2017. 7. 4.

■ 시진핑·푸틴 “韓사드배치 반대…한반도문제 대화해결 합의”(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공동으로 반대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푸틴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사드문제에 대해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으며, 두 정상은 이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함.

■ **러·中, 정상회담 뒤 한반도 위기 해결책 담은 공동성명 발표(연합뉴스)**

- 북한이 4일(현지시간)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문제의 종합적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음.
-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2017. 7. 5.

■ **푸틴-시진핑, 올들어 세번째 정상회담…“국제·지역 현안 논의”(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 러·중 양자 협력, 국제 및 지역 현안이 두루 다루어진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양국 외무부는 정상회담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음.

바. 일·러 관계

2017. 7. 7.

■ **러, 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일 크게 당혹(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포함한 해역 일대의 섬들을 독자적인 경제특구로 지정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크게 당혹해함.
- 러시아 극동지역을 총괄하는 유리 페트로비치 트루트네프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극동 담당 전권대표는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쿠릴열도를 포함한 일대 섬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NHK와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3	美의 中 '최악인신매매국가' 지정, 탈북여성매매 방관한 때문(연합뉴스) UNICEF, 8년만에 북 '삶의 질 지표' 조사(자유아시아방송)
	7.4	인권 전문가들 "미국인 보호 위해 북한여행 금지 필요"(미국의소리) 큰빛교회 임현수목사 석방 강력 요청(자유아시아방송)
	7.7	킹 전 특사 "북한여행 선별적 금지 필요...관광 막아야"(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7.4	유엔, 북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 30~50% 감소(미국의소리) 북 주민들, 해외 근로자파견 외면(자유아시아방송)
	7.6	북, 해외파견 근로자들 착취 심각(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7.4	국민의당 최경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7.6	어선 귀순 北주민 5명은 평양 거주자... "계획 탈북"(연합뉴스)
대북지원	7.4	말레이시아 NGO, 함경북도 의료시설에 구급차 지원(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7. 3.

■ 美의 中 ‘최악인신매매국가’ 지정, 탈북여성매매 방관한 때문(연합뉴스)

- 지난주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한 배경에 중국 내 탈북여성 인신매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온 탈북여성은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팔려가거나 강제로 사이버 포르노에 동원되고 있음.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기근이 덮친 이후 수많은 주민이 중국으로 향했고, 이 중 3만 명 이상이 한국 등 제3국으로 떠남.
-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인 ‘HHK’ 팀 피터스 대표는 “이번 중국에 대한 강등조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북·중 접경인 중국 동북 3성의 무법 환경으로 인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만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국경을 넘은 수십만 명의 탈북여성이 ‘적선시대’(홍둥가)로 흘러들어가는데 특히 불법적인 ‘신부 매매’ 조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 SCMP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수단, 이란, 북한과 마찬가지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강조됐다고 전함.

■ UNICEF, 8년만에 북 ‘삶의 질 지표’ 조사(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 지표 조사를 시작함.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와 수질 등 종합적인 정보를 2009년 이후 8년만임.
- 유엔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지표조사(MICS)를 진행하고 있음. 유엔아동기금은 가구별 위생상태와 시설 조사,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건강, 그리고 5세 이하 유아의 전반적 성장 상태 등 세 부분의 설문을 진행함.
- 가구별 조사는 가족상황과 교육정도, 하수시설과 생활용수 등을 조사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등 여성과 관련한 조사는 아이와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모유수유 현황 등을 파악함.
-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태어난 이후 성장 상태와 비타민 등 영양상태 등을 조사함. 유엔아동기금의 종합지표조사 자료를 종합한 사이트를

보면 북한서 종합지표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2009년 이후 8년만임.

- 종합지표조사는 1995년 유엔아동기금이 각 나라의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개발한 조사방법으로 북한에서는 1998년,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실시됨.
- 이 기구는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자료 만으로는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유엔과 국제구호기구의 통계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공개한 통계자료를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많은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함.

2017. 7. 4.

■ **인권 전문가들 “미국인 보호 위해 북한여행 금지 필요”(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힘.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워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함.
-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힘. 국무부가 오래 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비어 씨 사망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무부의 관련 움직임은 현명한 조치라고 밝힘.
- 솔티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하거나 무고한 행동이 체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워비어 씨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엄격하게 지키는 미국이 여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 큰빛교회 임현수목사 석방 강력 요청(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29일, 캐나다 토론토시 놀스옥 벨라스턴 광장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목사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림. 이 기도회는 외부 광장에서 열린것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800여명이 넘는 기독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임. 또한 살마 옛알루잔 상원의원, 연방자유당의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등 정부관련인사들이 참석했고 토론토 선 등 캐나다 주류언론들도 나와 취재열기를 더함.
- 최근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미국 대학생 워비어의 사망으로 임현수목사의 북한억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수면위에 떠올랐으며 임목사의 귀환운동은 캐나다 주류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큰빛교회는 기도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임목사의 억류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전하며 북한당국에 임목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함.

2017. 7. 7.

■ 킹 전 특사 “북한여행 선별적 금지 필요…관광 막아야”(미국의소리)

-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선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힘. 킹 전 특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막아야 하지만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방북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함. 킹 전 특사는 또 억류 미국인 오토 워비어 씨가 사망한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었다고 확인함.
- 또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억류 문제에 개의치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상황이 달라졌다는 식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미국의 관련 정책과 시도는 행정부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므로, 북한에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절차는 모두 똑같고,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직업외교관들 밝힘. 그는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마법의 단추’는 없다고 말함.
- 킹 전 특사는 여행 금지를 강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함. 타당한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있는 만큼, 선별적 여행 금지령이 적합할 것으로 밝힘.
- 그는 또 2009년부터 7년 동안 미 국무부 인권특사로 일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을 높게 평가함. 그는 미국이 유엔 총회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했고, 가장 중요한 결과로 2013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개설한 것이라고 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7. 4.

■ 유엔, 북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 30~50% 감소(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힘.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3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올해 1월 이래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80%가량 감소해 북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주요 농경지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유엔은 이어 피해 지역 일부 농작물의 수확량이 작년과 비교해 30~5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유엔은 지난달 북한당국과 국제적십자사, 국제 대북 지원기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 조사단이 황해남도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물 공급과 관개 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함.
-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럽연합협조대표부, 스위스 외교부 협조사무소,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관계자들이 가뭄피해를 가시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북 주민들, 해외 근로자파견 외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해외 파견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탓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최근 대홍관리국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 해외에 파견할 근로자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젊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해외파견 근로자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소식통은 “해외파견근로자 모집 공고문을 공공장소들에 게시했지만 신청자가 불과 몇 명에 불과했다”며 “해외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뇌물을 바치며 경쟁을 하던 것은 이제 옛 말이 되고 말았다”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는 해외파견 기피현상에 대해 지적함.
- “주민들이 해외 근로파견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월급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상이 이미 파견되었다 귀국한 근로자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함.
- 소식통은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월급은 조선중앙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받는다”며 “카드로는 돈이 얼마나 지불됐는지 알아 볼 방법이 없어 훗날 귀국을 해서야 약속한대로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고 통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예전엔 해외파견 근로자가 귀국하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지난 5월부터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평양견학과 금수산기념궁전 참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드는 비용도 전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지급하도록 해 3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도 근로자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소식통은 강조함.

2017. 7. 6.

■ 북, 해외파견 근로자들 착취 심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작업장과 숙소를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할당된 외화과제를 미달한 일부 파견 근로자와 외화벌이 업체들은 조기 귀국조치 당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봉(봉제)공들로 알려짐. 그 외에 건설부문, 농업부문, 해산물가공 순이고 기술 분야에선 컴퓨터 전문가들과 의료일꾼들이 파견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하지만 최근 북한은 대북제재와 외국 탐사전문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들의 작업장과 숙소를 부단히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부 외화과제를 미달한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함.
- 중국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요즘 북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한 친구의 회사가 갑자기 심양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며 “친구인 사장도, 그가 하는 일감도 바뀌지 않았는데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만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사장인 친구가 일부러 그들을 옮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책임진 북한 간부가 조용히 자리를 옮겨 줄 것을 완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구도 값싼 북한 노동력을 계속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고 말함.
- “북한 사람들을 고용한 소규모 기업들이 이렇게라도 운영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단동 항에서 수산물 가공 일을 하던 북한 근로자들은 외화벌이 과제를 채우지 못해 얼마 전 본국으로 모두 철수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7. 4.

■ 국민의당 최경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관련 정부 정책 심의에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 이탈 주민 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중 1인 이상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담김. 북한 이탈 주민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함.
-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됨. 북한 이탈 주민은 협의회에서 제외돼, 협의회는 자문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 최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와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7. 4.

■ ‘어선 귀순’ 北주민 5명은 평양 거주자…“계획 탈북”(연합뉴스)

-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5명이 모두 평양 출신인 것으로 전해짐. 이들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뒤 선박을 구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짐. 평양 출신의 해상 탈북은 극히 이례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면서 바다를 통한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할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해 계획적인 탈북임을 확인함. 남자 4명과 여자 1명 등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 선박 1척이 지난 1일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우리 해경에 발견됨. 이들 중 일부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전해짐.
-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평양 출신 탈북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음.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3만215 명 중 평양 출신은 693명으로 2% 남짓에 불과함.

5. 대북지원

2017. 7. 4.

■ 말레이시아 NGO, 함경북도 의료시설에 구급차 지원(미국의소리)

- 말레이시아의 의료 구호단체 ‘머시 말레이시아’ (Mercy Malaysia)의 암란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이달 말 함경북도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에 구급차 여러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급차 지원도 이 중 하나라고 말함.
-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 당시 북한 외무성의 요청으로 북한에 의료 지원을 했으며, 수해 현장에 구호팀을 급파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당국자들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또 무산군과 연사군 내 의료기관에 10만 달러 상당의 결핵약을 제공해 현지 주민 1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머시 말레이시아는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사군과 무산군 현지 병원에 결핵약 이소니아지드 1만 8천 정과 리팜시핀 6천 5백 정, 피라진아미드 1만 9천 500정, 에탐부톨 6천 정 등을 지원했다고 밝힘. 이 단체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앞서 2004년과 2008에도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함.